

담임목사 리더십 포럼-영적 지도력의 개발

주제발표자 :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사회자 : 권준 목사 (온누리교회)
토론자 : 유진소 목사
(LA온누리교회)
서정오 목사 (동송교회)

I. 영적 지도력의 개발의 필요성

“성공은 당신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지그 지글러)

“재능을 개발해야만 할 지도자는 정체되지 않은 상태의 재능은 있으나 그 능력을 사용하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기가 가진 재능을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지도자들은 타고난 재능을 개발하도록 훈련시키라.”(존 맥스웰)

1. 영적 지도력의 개발의 긴급성

지도자는 리더십 개발에 힘쓰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쉽게 받는다. 리더십의 부재는 교회 성장의 한계를 가져 온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일에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동시에 그는 제사장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겸손과 온유함도 소유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땅을 배분하는 일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뛰어난 리더십을 소유했다. 이와같이 진정한 리더십은 이끄는 기술이거나 능력이기 전에 그릇함이 없는 의로운 충성을 통해서 배양된다.

2. 영적 지도력의 개발의 가능성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만큼, 지도하는 사람들도 성장한다. 지도자의 성장이 멈추는 순간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능력도 멈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성격이나 방법론이 개인의 성장을 대신할 수 없다. 오늘부터 배우고 성장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희생을 통한 성장에서 오는 자기 훈련의 아픔을 택하든지 아니면 쉽게 살다가 기회를 놓치고 나서 느끼는 통한의 아픔을 선택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한다. 자기 훈련의 아픔은 가볍다. 하지만 후회의 아픔은 천만금처럼 우리를 짓누른다.”

3. 영적 지도력의 개발의 한계성

“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이유!” 좌절감이라는 덫을 주의하라. 100m단거리 경주의 경우 10초대를 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넘어섰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

능하게 되었나? 인간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노력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창조성을 소유함은 어려운 일이나, 이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태만이다. 창조적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됨은 그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유진 피터슨)

II. 영적 지도력의 개발의 세 가지 차원

1. 자신의 개발 차원

영성, 인격, 어느 교인 “목사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잘 훈련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니 이 교회를 나가고 있다.” 지도자는 리더십의 모델을 보여주어야 한다. -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리더십 모델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도자가 무엇을 하든지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그대로 보고 배운다. 지도자의 가치관이 새 사람들의 가치관이 된다. 1) 개인성장 계획을 세웠나? 2) 그 계획을 철저히 지키는가? 3) 다른 사람에게 본이되는가? 4) 지도자되기 위해 고생을 각오하겠는가?

지도력 개발을 위한 실제적 가이드

월 : 하나님의 뜻 추구(1시간) 화 : 리더십 테이프 청취(1시간)

수 : 리더십 테이프 복습(1시간) 목 : 리더십 책자 독서(1시간)

금 : 리더십 책자 복습(1시간)

2. 사람들을 세우는 차원

제자훈련, 가정 사역, 지도자에게는 지도자가 따른다. 지도자는 새 지도자들의 리더십의 재능에 대해 믿음을 갖게 하고, 그들의 잠재된 리더십의 기술들을 키우고, 개발시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101%의 원리” 새 지도자가 가진 가장 귀한 고귀한 잠재 능력 하나를 개발해 낸다. 그리고 거기다 100% 격려와 후원을 쏟아 붓는다. 개인이 가진 한 가지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 전적이 후원을 해주면, 긍정적인 성장을 하게 되며 자신감을 갖게 되고 지도자 재목으로 성공한다.

- 1) 성장의 기회들을 제공하라. - 교회 안의 네트워킹의 사역의 가능성.
- 2) 비전으로 인도하라(관리하지 말라)
- 3)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과 자신이 배운 교훈들을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즐거워한다.

예비 지도자를 발견하면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BEST전략이 필요하다. 그들을 믿어주라(Believe in them) 그들을 격려해 주라(Encourage them) 그들과 나누라(Share with them) 그들을 신뢰

하라(Trust them)

3. 사역을 수행하는 차원

사역, 행정. 조직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1) 동기의 점검이 필요하다.
- 2) 은사의 확인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 3) 도전을 수용했을 때의 변화를 보여준다.
- 4) 성공하였을 때 축하를 아끼지 않는다.
- 5) 사역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도전이 필요하다.

III. 영적 지도력의 개발의 실제

1. 영성의 개발

고요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홀로 있는 것이 좋다. 우리 앞에 성경을 펼쳐 놓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런 후에 만일 우리에게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단계에서는 정원을 걷는 임재의 소리를 듣는다. 둘째 단계에서는 보다 명료하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분명하지 않은 음성을 듣는다. 다음 단계에서는 성령께서 성서를 조명해 주시며, 이전에는 기껏해야 하나의 소리나 음성이었던 것이 하나의 명료한 말씀, 사랑하는 친구의 말처럼 따뜻하고 친밀한 말씀이 되는 행복한 순간이 임한다. 그 다음으로는 빛과 생명이 임한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우리의 구주시오, 주시오,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포용하고 그 안에 쉴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계속 알기를 원한다면, 즉시 성경이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성경을 펼치라. 성경이 당신 마음대로 밀쳐 낼수도 있는 사물이라는 관념을 버리라. 그것은 사물이라기보다는 음성이에요, 말씀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깊은 영적 생활로 인도하는 간단하고 쉬운 교훈은 없는가? - 지름길이 없다.

- * 스스로 묵상과 기도 시간을 계속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과거, 미래의 하나님보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거기에 누군가가 계신다는 의식(Someone there).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의식. 하나님은 책속에 갇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직접 대면함으로 가장 잘 인식됨.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눈과 귀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야 한다."

- * 영혼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일과 의식하는 일을 대신할 것이 없다. 참 믿음은 이성의 작용이 아니다. 경험과 비경험의 차이. 큰 비극 : 종교적 개념으로 총만하나, 마음은 텅 비었다.

하나님과의 순수한 만남이란 체험이 필요하다.

영적 위인 = 하나님 존재 예리하게 의식, 그 의식의 의식, 의식을 평생 지킨 자.
인간에게 영적 세계 감각 기관 주심. 사람 범죄 후 그 기관 죽음.

“죄로 죽었다”=신체, 지성의 죽음아닌,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기관 죽음 의미. 그 이후 인간은 부적절한 기관 즉 이성과 이해의 능력의 자리인 정신에 의존.

1)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다만 하나님에 관해 알 뿐이다. 이성의 빛으로도 하나님의 중요 성품 안다(롬1:19-20).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 위로 비침 받기 전까지, 인간 향해 숨어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2) 성령의 비침을 본 사람은 깊고도 권위있는 방법으로 신령한 지식을 알게 된다.

3) 인간 정신의 무능성때문에 하나님의 비침의 필요성이 있다. 성령을 떠나서는 진리가 없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 훈련의 개발 : 주변에 사람들을 길러내라.

“후계자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피터 드러커).

가르치다의 히브리어의 네 가지 뜻 “깊게 박히게 하다. 깊이 새기다.

표적을 꿰뚫다. 칼날을 세우다“

지도력 함양을 위한 실제적 제안

* 사탄의 4가지 요소 : 잘 생기고, 지혜있고, 힘있고, 그러나 교만하고.

지혜가 없으면 이용당하고, 힘없으면 뒤에서 조정하고....

그러나 이런 것을 다 갖추고 겸손하기까지 하면 세상을 지배한다.

3. 사역의 개발 : 사전 준비, 광고, 공격적 캠페인, 전문가 스태프조직.

삶과 복음의 연결, 냉면집과 문화의 차원.

실제 훈련(기술 훈련을 받고 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사탄의 4가지 요소 : 잘 생기고, 지혜있고, 힘있고,

그러나 교만하고. 지혜가 없으면 이용당하고,

힘없으면 뒤에서 조정하고.... 그러나 이런 것을 다 갖추고 겸손

하기까지 하면 세상을 지배한다.

VI. 영적 지도력의 개발의 모델

1.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2. 느헤미야의 모델
3. 사도 바울의 모델
4. 바나바의 모델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긴급한 필요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더 좋은 조직, 교육, 장비, 방법도 죽은 자에게 인공호흡기 대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기구적 통일이 아니라 능력이다. 진정한 성도라면 생명없는 종교적 활동에 지불유예기간을 선포하고, 다만 위에서부터 오는 영감을 받아들일 준비태세로 우리의 짐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의 깊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침투 사건이 없이는 안 된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잘못을 보여 주시고, 그 처방책을 마련하신다. 그리고 오직 성령만이 성령 없는 기독교의 마비된 실재에서 우리를 구출하신다. 오직 성령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오직 성령의 내적 역사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엄과 황홀한 신비를 발견하게 된다.”